

# ‘황금알 산업’ 지자체 규모 키우기 경쟁

## ■ 전국 ‘마이스(MICE) 산업’ 현황

### 10배까지 늘리는데 광주는 4분의 1 확장 그쳐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마이스(MICE·전시컨벤션)산업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전시 및 회의시설을 대규모로 늘리는 등 앞다퉈 시설확충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05년 개관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가 내달 제2컨벤션센터 증축을 통해 또 한 번 도약의 기회를 맞을 전망이다.

하지만, 제2컨벤션센터 건립이 부지 변경으로 인해 예산 규모보다 4분의 1로 축소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지적이다.

◇제2컨벤션 건립 배경=지난 2005

년 개관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전시장·회의실 운영실적은 최근 전시장 가동률 70%를 넘으면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지난 2007년 63.2%였던 전시장 가동률은 ▲2008년 69.0% ▲2009년 65.5% ▲2010년 70.6% ▲2011년 70.2%였다. 조류인플루엔자가 창궐한 2009년을 제외하고는 70% 안팎의 가동률을 보였다.

전시장 가동률이 70%를 넘으면 운영실적이 ‘최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올 하반기에도 ‘국제 라이브 비전 엑스포’ 등 8건의 국제전시회를 비롯한 ‘아트 광주’ 등 일반전시회 20여 건 등 40여 건의 굵직한 전시행사가 진행되

## ■ 국내 주요 전시컨벤션센터 규모현황 (2012. 7. 10 기준)

기관명	지역	총면적(m <sup>2</sup> )		기존면적(m <sup>2</sup> )		확충면적(m <sup>2</sup> )	
		전시장	회의실	전시장	회의실	전시장	회의실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	12,027	4,251	9,072	2,238	2,955	2,013
KINTEX	고양	108,049	9,418	53,541	3,298	54,508	6,120
BEXCO	부산	46,380	13,117	26,508	6,839	19,872	6,278
COEX	서울	35,287	11,573	35,287	11,573	-	-
EXCO	대구	22,716	7,909	11,616	4,109	11,100	3,800
송도컨벤시아	인천	8,416	4,020	8,416	4,020	시설확장 추진중	-
CECO	창원	7,827	2,784	7,827	2,784	-	-
DCC	대전	2,520	4,862	2,520	4,862	시설확장 추진중	-
ICC Jeju	제주	2,395	7,920	2,395	7,920	-	-

는 등 전시장 대여가 힘들 정도다.

특히 내년 6월에는 30개국 2만여 명이 참석하는 청년회의소(JCI) 아시아-태평양 회의가 예정돼 있고, 10월에는 40개국 3500여 명의 재외교포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2013 세계한상대회’가 개최되는 등 국제대회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전시장 내방객은 100만명을 돌파해 지역 경제 생산파급효과가 3조3960억원(한국은행 집계)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조속히 제2컨벤션센터 건립을 서둘러야 했고, 이 과정에서 부지 확보 문제로 5·18 단체와 갈등을 빚다가 결국은 현 위치에 4분1 가량으

로 줄어든 규모로 증축을 하게 됐다.

◇‘규모를 키워라’ 지자체 확장 경쟁=부산 벡스코는 올해 전시 및 회의시설 2만6150m<sup>2</sup>를 확충했다. 지난해는 고양 킨텍스가 6만628m<sup>2</sup>를, 대구 엑스코가 1만4900m<sup>2</sup>를 확충하는 등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확장 면적에 비해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늘었다.

여기에 인천과 대전이 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등 각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전시장 규모를 확충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각 지역별로 컨벤션 규모를 확장하면서 지역 간 전시컨벤션산업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실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규모는 국내 전시컨벤션 규모 4위인 대구 엑스코에 비교해 면적만 2배가량 차이가 나고 있다.

/최민원기자 cki@kwangju.co.kr

# 국회의원 ‘有黨무죄 無黨유죄’

##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상반된 결과

### 박주선 구속 여부는 항소심 재판부에 달려

무소속 박주선 의원과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상반되게 나오면서 두 의원은 회비가 갈랐다.

민주당 출신의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지만 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것이다.

물론 두 의원의 법률적 상황은 달랐지만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여당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체포동의안 하자’ 부결 호소=11일 본회의의 표결에 앞서 두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부결을 호소했다.

박 의원은 “구차한 변명하러 온 게 아니다. 특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며 “1심 선고한 재판부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사법부의 횡포”라며 “만일 이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서 (철회를) 못하겠다면 부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미 (1심 판결에) 항소해 소송기록이 광주지법에서 고법으로 송부해서 체포동의안을 요청한 광주

지법 판사에게 (이를 신청할) 권한이 없다.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 상정돼선 안 된다”며 체포동의안의 법적하자를 주장했다.

정 의원 또한 “형님 문제를 덮을 수 없게 되자 쇠신의 길을 걸어온 나를 함께 거론해 눈엣가시인 나를 제거하려 한다는 게 시종의 여론”이라며 “입석 회장을 이상득에게 소개시켜 준 것이 잘못된 다인 나를 검찰은 공범으로 몰고 있다, 삼척동자도 웃을 일”고 주장했다.

◇항소 절차는=결과가 상반되게 나오면서 항소 법적 절차도 달라지게 됐다. 무소속 박주선(63)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항소심 재판부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가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당당 재판부인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가 지난달 27일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이를 뒤인 29일 항소한 만큼 구속이 필요한 체포동의안의 제출은 항소심 재판부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복잡한 과정’이 불가피한 것은 일반적으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검찰의 영장청구 등

## ■ 2000년(16대 국회) 이후 체포동의안 처리 현황 (총 11건 중 9건 부결)

국회	본회의의 표결일	대상 의원(당시 소속 정당)	결과
16대	2003년 12월 30일	박재욱·박명환·박주선·최동운(이상 한나라당) 박주선·이훈평(이상 민주당) 정대철(열린우리당)	부결
17대	2004년 6월 29일	박창달(한나라당)	부결
18대	2010년 9월 2일	강성종(민주당)	가결
		박주선(무소속)	가결
19대	2012년 7월 11일	정두언(새누리당)	부결

부 여부와 함께 1심 재판부가 박 의원의 법정구속을 위해 제출한 체포동의안의 효력이 항소심에도 미칠 것인지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의 구속을 위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까지 체포동의안을 2차례나 국회에 제출하는 사상초유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관할법원의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은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문유석)가 지난달 27일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이를 뒤인 29일 항소한 만큼 구속이 필요한 체포동의안의 제출은 항소심 재판부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복잡한 과정’이 불가피한 것은 일반적으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검찰의 영장청구 등

에 의해 재판부가 요청하지만 박 의원의 경우 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1심 재판부에서 법정구속을 해야할 징역 2년을 선고한 만큼 국회의원 구속이 필요한 체포동의안 제출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박 의원의 구속 여부나 체포동의안 요청 등이 종대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 상당한 시간을 두고 결정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 의원에 대해 지난 6일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은 법원에 의해 기각될 수밖에 없게 됐다.

정 의원에 대한 법적 절차는 이미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 영장에는 정 의원을 영장실질심사법정에 강제로 데려



1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정두언(위),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엇갈린 표정. /연합뉴스

오는 구인장 개념과 일반적인 구속영장의 의미가 모두 담겨 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별개 문제다. 검찰은 이번 국회 회기가 끝난 이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포함해 추후 수사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대검 고위관계자는 “우리는 여전히 (정 의원의) 구속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gma 광주시립미술관 개관 20주년 특별 전시



## “세상 시름 잊고 씨익 웃어봐요”

### 권기수 작 ‘동구리’

몸통보다 더 큰 동그란 얼굴. 몇 가닥 안 되는 머리칼에 미소 띠고 입매로 전시장 입구 계단부터 벽면을 따라 늘어선 작가의 씨익 웃는다.

깜찍하고 빨강·노랑·파랑 등 알록달록한 얼굴로 전시장이 환하다. 선생님을 따라 단체 체합 행을 떠나는 듯 바닥에서 천장까지, 눈 돌리는 곳 어디에나 가득하다.

권기수(40) 작가 작품이면 어김없이 등장 하는 캐릭터 ‘동구리’ 애기다.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된 동구리는 동글동글한 얼굴에 늘 한결같이 환하게 웃고 있는 작품 속 캐릭터로, 작가가

직접 붙인 애칭이다. 농는 위치, 장소에 따라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늘 밝은 미소를 물고 있는 캐릭터지만 탄생 배경은 그리 밝지 않다. IMF 이후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서민 삶을 담은 드로잉 작업을 하면서 만들어진 이름이다. 권 작가는 동구리에게 세상 시름 잊고 행복하게 살아가고픈 작가 자신과 평범한 보통 사람들을 대변하는 화자의 역할을 맡겼다.

권 작가는 경북 영주 출신으로, 홍익대 동양학과에서 동양화를 전공했다. 이 때문에 팝아트 분위기가 물씬 나지만 동양화를 전공한 작가의 정서가 고스란히 퍼져 러진 작품도 적지 않다.

/김지영기자 dok2000@kwangju.co.kr



무소속은 가결! 집권여당은 부결?! /김중두

# 93일간의 광복을 기다리는 이야기

## 바다에서 열리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바다와 인류의 아름다운 공존을 노래하고 자연과 문명의 조화로운 상생을 기원하는 지구촌 바다축제가 대한민국 여수에서 펼쳐집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는 해안박람회의 새로운 경을 열어나갑니다.

주 제 |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기간 | 2012년 5월 12일 ~ 8월 12일(93일간)  
장 소 | 전라남도 여수 신항 일대  
규모 | 참가국 100여 개국

**〈입장권 구매안내〉**

- ▶ 보통권 : 성인 33,000원, 청소년·어린이·경로 10,000원 (6월 28일부터)
- ▶ 평일단체권 : 성인 27,000원, 청소년·어린이·경로 5,000원 (6월 28일부터)
- ▶ 인터넷 홈페이지 | www.interpark.com
- ▶ 전화예매 | 조직위원회 입장권부 (1577-1763) 인터파크 고객센터 (1544-1555)
- ▶ 상품구매 | 광주은행 (1588-3388) 기업은행 (1566-2566) 이마트 (02-380-5678) 전지점 코레일 (전국 주요역 내 여행센터 19곳과 여수엑스포역에서 판매) 전국 신세계백화점 (1588-1234)
- ▶ 안내전화 | 1577-2012
- ▶ 단체관람객 서비스센터 | 061-659-3585~9

★ 입장권 구매시 모든 전시관·공연·아쿠아리움 관람 가능 (아쿠아리움 주변에 아쿠아리움 3D 입체영상관 무료관람 가능)

★ 입장권(또는 예매권) 구매자에 대한 열차운임 30% 할인(명목 18) 단 열차운임 2일 전 예매시 및 출발 또는 도착역이 순천·여천·여수엑스포역에 한함

★ 여수세계박람회의 전시·공연·경연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 홈페이지 내 [여수엑스포 길라잡이]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시관 인터넷 사전예매제 실시 (6월 23일부터 실시)  
입장권 반납과 전시관 예약반납도 예약 가능함. (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 박람회 운영시간 변경안내 : 평일 08:30 ~ 22:30 / 토·일 공휴일 08:00 ~ 22:30

**〈볼거리·즐길거리〉**

- ▶ 80여개의 전시관과 체험시설과 8,000여회의 다양한 문화행사
- ▶ 세계가 주목하는 엑스포 팝 페스티벌이 엑스포 특설무대에서 매일 밤 공연
  - 기간 : 2012년 6월 16일 ~ 8월 11일
  - 시간 : 매일 저녁 8시
  - 장소 : 박람회장 내 엑스포 특설무대
  - 7.5(목) 2PM. 미스에이 / 7.9(일) 이문비 / 7.10(화) 인순이 / 7.12(목) 소녀시대, EXO-K / 7.13(목) 싸이, EXO-K / 7.17(화) 에픽하이 / 7.21(토) 슈퍼주니어, CNBLUE / 7.28(목) 국영남보현 K-POP 특집콘서트 (비. KCM 외)
  - 8.4(토) 제9회 아시아송 페스티벌 / 8.11(토) FTA공연, 제국의아이들

▶ 7월 공연안내

- 바다사랑 창작대회
- 사진작가 배병우 초청 강연
- 열혈길 다큐 '바다로 가다'
- 뮤지컬 '신나는 바다 놀이'
- 심포지엄 '해양 경제의 미래'

★ 위 공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야간 입장권 안내〉**

- ▶ 회장 내 80여개 전시시설, 야간 문화공연 이용
- ▶ 입장요금 : 성인 10,000원, 청소년·어린이·경로 특별권 5,000원 (6월 25일부터)
- ▶ 입장시간 : 17:00 ~ 22:00 (6월 12일까지 연중)
- ▶ 판매장소 : 정문, 문, 2문, 3문, 4문 야간 매표장(16:30 ~ 20:00까지)